

[정규과정]

웹소설 기획하기

웹소설 분야에서의 장르 구분 이해하기

기존 소설 장르와 다른 장르 구분과 배경에 대해
이해할수 있습니다.

튜터 이두호

주제 : 웹소설 분야에서의 장르 구분 이해하기

웹소설의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장르의 개념은 그 층위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다. 장르 소설로부터의 유산도 있지만, 매체성에 의해 장르 연관 개념이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어있다.

웹소설의 장르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여성향과 남성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현대 로맨스, 사극 로맨스, BL, 로맨스 판타지 등의 로맨스 중심 소설, 레이드물, 한국식 이세계물 등의 퓨전 판타지 계열 소설, 전문가물, 스포츠 판타지, 기업물 등의 사회적 성공을 다루는 현대 판타지 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남성향 소설이 여성 독자들에게 소비되기도 하는 등 경계가 일부 허물어진 소수 사례가 존재한다.

실제로 웹소설 플랫폼에서 장르 명칭은 단지 메뉴의 타이틀로만 기능할 뿐, 실제로는 창작/유통되는 작품이 적어 실질적인 장르 연관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웹소설 플랫폼에서의 구분은 작가나 독자들에게 약간은 모호한 좌표를 마련해 주는 수준이다.

가령 ‘판타지’, ‘멜로’, ‘무협’ 등은 기존 장르소설과의 친연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웹소설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르적 관습에 대한 독자들의 취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웹소설에서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된 장르개념으로 쓰이는 기호로 ‘~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물’은 일본어 ‘物語(모노가타리):이야기’의 약어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공포물’은 이를 전제로 하여 풀어 써 보면 ‘공포 이야기’, ‘추리물’은 ‘추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물’은 여러 가지 양식적인 제약을 요구하는 ‘장르’보다는 더 느슨하게 쓰이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서사를 포함하고 있는 양식을 구분하는 ‘영화’, ‘소설’등의 장르를 넘어서 수 있는, 더 상위에 위치한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추리소설’과 ‘추리영화’가 ‘추리물’이라는 장르 명칭으로 통합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물’은 웹소설의 정착 훨씬 이전부터 쓰이던 개념이다. ‘추리물’, ‘공포물’, ‘SF물’, ‘멜로물’ 등은 웹소설의 독자가 아니더라도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웹소설의 장에서 쓰이는 ‘~물’은 그것과는 구별되는 장르 명칭들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 즉, 웹소설에서는 좀 더 좁은 외연을 가진 ‘재벌물’, ‘사이다물’, ‘회귀물’이라는 명칭들이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또, 이전 시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지칭할 때 쓰이는 명칭으로 변모하고 있다. ‘~물’이라는 장르 개념이 지칭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판타지’나 ‘로맨스’ 등의 개념보다 더 좁은 범위의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거론할 수 있다. 가령 ‘재벌물’이 아닌 ‘알부자물’이 등장하는 유형이다. 한층 좁은 범위의 소재에 ‘~물’을 사용했다. 해당 모티프가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위치를 차지할 때 그것을 지칭하기 위한 요소로 쓰인다. 마치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용되는 태그(Tag)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즉, ‘재벌물, 갑질물, 사이다물’이 한꺼번에 이 작품의 장르적 특성을 설명하는 라벨처럼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개념이 특정 ‘소재’ ‘모티프’의 포함을 해당 ‘~물’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판타지’나 ‘무협’ 등 다른 장르 개념들이 요구하는 양식적인 기준들을 좀 덜 까다롭게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웹소설분야에서 ‘~물’이라는 장르 명칭은 최근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있다.

1) 주류 장르

2010년대 이후 시작된 4세대 장르소설 시점에서 독자적 분류장르로 인식되는 주류장르와 마이너 장르와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규모있는 유행성: 유의미한 상업적 성과를 넘어, 웹소설 시장에서 규모있는 유행을 촉발시킬 정도로 파급력과 영향력 있는 선도적 대표 작품을 지님.
- 장르 지속성: 웹소설 시장에서 장르적 실체화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됨.

남성향	한국식 이세계물, 탑등반물, 게임빙의물, 던전운영물, 헌터물, 레이드물, 성좌물, 대체역사물, 게임 판타지, 무협 웹소설, 판타지 웹소설, 정통 판타지, 명가물, 아포칼립스물
여성향	로맨스 판타지, 무협 로맨스, 악녀 빙의물, 오메가버스, 사극 로맨스, 현대 로맨스
성향혼재	책빙의물, 학원물

2) 소재적 장르

소재적장르는 정확한 분류 명칭은 아니지만, 특정한 세계관이나 배경세계, 체계를 지니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서 클리셰나 소재로서 기능하는 즉 협소한 모티브를 지닌 장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소재적 장르는 명확한 세계관이나 체계가 없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힘들며, 따라서 다른 장르의 세계관과 배경체계를 동원하고 있다. 웹소설 시대의 장르들은 특정 모티프 정도로 장르의 기준을 요구하는 등 양식과 제약을 비교적 덜 요구하게 변하였는데, 소재적 장르들은 이러한 특징이 더욱 강화된 장르들인 셈이다. 이 때문에 소재적 장르들은 타 장르들과 믹스되는 경향이 강하며, 여러 장르가 장르로서 동시에 기재되곤 한다.

남성향	정치물, 귀환물, 천마물, 망나니물, 기업물, 스포츠 판타지, 인방물, 전문가물, 연예계물
여성향	BL 소설, 후회물, 계약물, 피폐물

성향혼재	회귀물, TS물, 가족물(육아물, 아기물), 성인 웹소설
------	---------------------------------

3) 마이너장르

주류 장르와 비교한다면 독자적인 장르적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대표작을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아직까지는 주류 장르에 비해서 그 장르 흐름이 미약하여 웹소설 시장 내부에서 제대로 실체화되지 못한 장르 분류이다.

마이너장르	일본식 이세계물, 선택소설, SF, 스페이스 오페라, 사이버펑크, 일상물, 힐링물, 인외물, 야만전사물, 네크로맨서물, 호러(오컬트, 코즈믹 호러), 팬픽(아이돌 팬픽), 여주관, 남녀역전물, 던전물, 범죄물/피카레스크, 첩보물/요원물
-------	---